

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[수탁26-020-00]

1. 출장 개요

출장목적	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위한 미국의 아동자산형성제도 관련 전문가 논의
과 제 명	[수탁26-020-00]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
출장기간	2026.07.07.(화) ~ 2026.07.15.(수)
출장국가(도시)	미국(워싱턴 D.C., 뉴욕, 세인트루이스)
출 장 자	류정희 선임연구위원

□ 일정요약

일자	국가(도시)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활동상황
7/8(수)	미국 (워싱턴 D.C.)	Urban Institute	Madeline Brown, child bonds team	- Baby Bonds 주정부 입법 기술지원과정 및 제도 시행 현황 논의 - 이동(워싱턴 D.C. → 뉴욕)
7/9(목)	미국(뉴욕)	The New School	Darrick Hamilton 교수, David Radcliffe 소장 및 Baby Bonds Team	- Baby Bonds vs Trump Accounts 구조적 차이 논의
7/10(금)	미국(뉴욕)	NYC Kids RISE	Debra-Ellen Glickstein 소장	- 미국 최대 도시단위 CSA 도입배경 및 중앙정부 CSA와의 제도연계 방안 논의
7/12(일)	도시 간 이동	미국(뉴욕 → 세인트루이스)	-	-
7/13(월)	미국	Washington	Jin Huang 교수,	- SEED OK의 실험과

일자	국가(도시)	방문기관	면담자	주요 활동상황
	(세인트루이스)	University	Michael Sherraden 교수, Ray Boshara	Trump Account 제도설계 관련 논의 - Trump Accounts의 자동등록제(Opt-out) 도입 입법화 추진쟁점 관련 논의
~7/15(수)	미국(세인트루이스) → 대한민국(인천)	-	-	-

※ 사전 대체신청으로 근무일로 인정받은 휴일근무(7.12.(일) 뉴욕→세인트루이스 이동) 내용은 별도 상세 기재 요망

2. 출장 주요내용

① Urban Institute

일 시	2026.07.08.(수) 14:00~17:00
장 소	미국 워싱턴 D.C., Urban Institute
참 석 자	Madeline Brown(Senior Policy Associate, Urban Institute), 류정희 선임연구위원(KIHASA)

□ 회의 목적 및 개요

- Urban Institute의 아동발달계좌(CDA)·베이비본드 연구 총괄 정책담당자 면담을 통해 연방 Trump Accounts의 법적·행정적 설계 배경과 주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을 파악

□ Trump Accounts 도입 배경 및 등록 현황

- 2026.7.4. 서명된 세제법안에 포함되어 도입된 미국 최초의 연방 아동발달계좌 제도
- 2026.6월 기준 전체 대상 아동의 약 80%(600만 명) 등록, 이 중 시드머니(\$100) 수급자격 충족자는 약 39%(140만 명)에 불과

□ 자동가입(Opt-out) 미도입의 법적 제약

- 국세청 정보공유 제한(세법 제6103조) 및 미성년 단독 은행계좌 개설 불가 규정이 자동가입 도입의 핵심 장애요인
- 최근 사회보장청의 협조로 병원 출생신고 서식을 활용한 자동가입 인프라 구축이 추진 중이나 현재는 옵트인(opt-in) 구조

□ 프로그레시비티(누진성) 설계 대안

- 2018년 American Opportunity Accounts Act 모델(연방빈곤선 대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, 정부 총기여 최대 \$35,000)을 참고할 필요
- 현행 Trump Accounts는 균등지급(\$100) 위주로 설계되어 저소득층 대상 추가 재원이 자선기부(예: Dell 가문 \$60억 투자)에 의존 → 공공재정 대체 우려

□ 한국 기존 CDA(디딤씨앗통장)와 신규 보편적 CDA 간 관계 설정 자문

- 기존 타겟형 CDA(약 2만 명, 2:1 매칭)와 신규 보편적 제도의 중복 문제에 대해 "정부비용 절감" 목적과 "이용자 경험 개선" 목적을 구분해 접근할 것을 자문
- 위탁아동 등 최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지원은 "중복"이 아닌 "필요기반 추가지원 (additive)"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

□ 향후 협력

- 연방빈곤선 기준 설계모델, 주정부 non-bank trustee 관련 자료, 위탁아동 대상 가입확대 자료 등 이메일 공유 예정

② The New School

일 시	2026.07.09.(목)
장 소	미국 뉴욕, The New School
참 석 자	Darrick Hamilton 교수, David Radcliffe 소장 및 Baby Bonds Team, 류정희 선임연구위원(KIHASA)

□ 회의 목적 및 개요

- The New School 정치경제연구소의 baby bonds 이론적 틀 및 Trump Accounts에 대한 비판적 평가 청취, 코네티컷주 베이비본드 실제 설계 경험 자문 (David Radcliffe 소장은 코네티컷주 재무부에서 미국 최초 baby bond 프로그램 설계에 참여한 경력 보유)

□ Trump Accounts에 대한 비판적 평가

- 보편성(universality)이라는 아이디어를 개인 계좌화를 통해 "부패(corrupt)"시킨 사례로 규정 — 사회보장제도 대체를 겨냥한 설계라는 재무장관 발언 인용
- 균등지급 방식은 저소득층 지원 효과를 오히려 희석(dilute)시켜 불평등을 심화할 위험 → 보편성과 누진성을 결합한 설계가 원칙이어야 함

□ 지역별 차등설계 필요성 — 코네티컷·뉴멕시코 비교

- 아동빈곤율이 높은 뉴멕시코는 균등형 설계가 정치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, 코네티컷과 같이 소득격차가 큰 지역은 누진적 설계가 필수
- 한국 상황은 코네티컷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 → 지역·계층 격차를 반영한 누진적 설계 필요성 재확인

□ 계좌 관리주체 — 청년 본인 관리 원칙

- "부모가 아닌 청년 본인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 관리권을 가져야 한다"는 원칙 제시
- 국내 청년 6개 그룹 대상 FGI 결과와 부합(청년들은 부모 통제 배제, 본인 직접 관리를 희망)

□ 청년층 신용·부채 문제 — 코네티컷 New Haven 파일럿 사례

- baby bond 수급 예정 청년의 상당수가 이미 마이너스 순자산·평균 \$10,000 부채를 보유 → 신용점수 제도를 "현대판 레드라이닝"으로 규정
- 세인트루이스 등 일부 파일럿의 부채경감 병행설계 사례를 참고해 자산 활용도 제고방안 검토 필요

□ 시사점

- 아동수당(현재 소비)과 CDA(미래 자산)의 병행 설계, 저소득 근접계층 사각지대 해소, wrap-around 서비스를 통한 시민참여 효과 제고 방안 등 추가 자문

③ NYC Kids RISE

일 시	2026.07.10.(금)
장 소	미국 뉴욕, NYC Kids RISE
참 석 자	Debra-Ellen Glickstein 소장, 류정희 선임연구위원(KIHASA)

□ 회의 목적 및 개요

- 미국 최대 도시단위 아동저축계좌(CSA) 프로그램의 설계·운영 경험 및 연방 Trump Accounts와의 제도연계 방안 청취

□ 이중 계좌·코호트 옴니버스 구조

- 보편적 자동가입(opt-out) 방식의 장학금계좌(NYC Scholarship Account)와 가족연계 저축계좌의 이원구조로 운영
- 개인별 계좌가 아닌 코호트(학급) 단위 옴니버스 계정으로 운영 → 관리비용 절감 및 공적급여 수급자격 미산입 효과

□ 커뮤니티 장학금(Capital Stack) 모델

- 학군·공공주택단지·학교(동문)·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소액 기부를 결합하는 구조로 보편적 제도 내 누진성을 보완
- 이민신분·서류 여부와 무관하게 전 아동 가입을 허용 → 취약계층 포용성 확보

□ 자동가입 전환 및 소유권 이전 설계

- 메인주 사례(병원 출생기록을 연계해 opt-in에서 opt-out으로 전환, 가입률 대폭 증가)를 참고사례로 제시
- 계좌 소유권은 유치원 입학 후 20년(만 25세) 시점에 이전, 미사용 시 다른 아동에게 재배분 — 영국 CTF의 미청구 계좌 문제를 반면교사로 설계

□ 시사점

- 자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기관 직접지급·인출한도·재정코칭 등 대안 검토
- capital stack을 통한 민간재원 결합모델은 한국 제도의 재원 다각화 방안으로 참고 가능

④ Washington University in St. Louis (Center for Social Development)

일 시	2026.07.13.(월)
장 소	미국 세인트루이스, Washington University in St. Louis
참 석 자	Jin Huang 교수(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공동소장), Michael Sherraden 교수, Ray Boshara, Li Zou (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Internation Director), Johnson, Lissa 류정희 선임연구위원(KIHASA) 등

□ 회의 목적 및 개요

- 아동발달계좌(CDA) 이론적 틀의 발원기관인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(CSD)와 SEED OK 실험, Trump Accounts 제도설계, 한국 기존 CDA 개선방향에 대한 종합 자문

□ CDA 설계원칙 및 정책유형 구분

- 미국의 CSA/CDA, 베이비본드, Trump Accounts를 계좌기반(account-based) vs 신탁기반(trust-based)으로 구분 — 한국의 3개 정책안은 모두 계좌기반 CDA로 규정됨을 확인

- 보편적 가입자격·자동등록·자동초기예치·투자수익구조·자산한도면제 등을 포함하는 "보편적 CDA 설계원칙" 자료 공유 예정

□ 한국 기존 CDA(디딤씨앗통장) 개선방향

- 완전히 새로운 제도보다 20년간 운영된 기존 제도(개인·기업 후원 결합모델)의 발전적 확대를 권고
- 매칭 방식의 역진성 위험 및 계좌 이원화에 따른 행정비용 문제를 지적, 이스라엘의 아동수당-CDA 옵트인 전환모델을 대안으로 소개

□ Trump Accounts 자동등록제(Opt-out) 입법화 쟁점

- SEED OK 실험 결과를 근거로 자동등록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정책성명(CSD Testimony) 다수 제출 이력 공유
- 국세청 데이터공유 제약, 미성년 계좌개설 규정 등 행정적 난제와 대응방안(사회보장청 협조, 주정부 명단 활용 등) 논의

□ 금융교육 근거기반 논의

- 광범위한 학급단위 금융교육의 효과는 근거가 미약하며, 적시(just-in-time)교육·개별화된 금융코칭이 효과적이라는 실증연구 결과 공유
- 계좌형(CDA)이 신탁형(베이비본드)보다 금융역량 형성에 유리하다는 점을 싱가포르 CDA 사례로 설명

□ 향후 협력

- 우리아이자립펀드 타당성연구 케이스스터디 보고서("The U.S. Trump Account: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Korea") CSD 명의로 작성·제출 완료 (7.16.)
- 2027.1월 샌프란시스코, 2027.7월 싱가포르 국제 컨퍼런스 참여 제안 및 CSD를 통한 케이스스터디 출판 협의 진행 중

3. 출장 증빙



